

總義齒 患者에 있어서 하노氏 咬合器의 臨床的 價値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教授

沈 泰 錫

原因如何를 莫論하고 近來에 總義齒 患者가 增加한 것은 事實이다. 이러한 患者의 苦惱이라하면 咀嚼不能, 顔面變型, 發音障礙等을 들수있으며, 또한 齒科醫로서는 마땅히 上記諸機能을 恢復시켜 주어야 비로서 其總義齒의 眞價를 나타내는 것이다. 然이나 종종 患者가 總義齒를 一種의 “악세사리”로 使用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患者의 其不平과 原因은 무엇일까?

言及할 餘地도 없이 上記 三大諸機能이 完全 恢復되지 못한데서 온 것은 不問前知의 事實일 것이다. 이러한 機能恢復을 解決할 重要問題는 어디까지나 喪失된 高徑과 下顎關節運動이며, 또 其關節運動과 같이 機能을 할 수 있으며, 千差萬異의 患者를 測定할 수 있는 咬合器일 것이다.

“下顎關節運動”이라하면 우리가 單純한 것같이 生覺되나 이 下顎關節運動보다 複雜한 運動은 없을 것이다. 이 運動은 다른 關節과는 달리 兩關節이 同時에 움직여서 비로서 한 運動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 關節運動은 細分하여 보면 開閉運動, 蝶蟠運動左, 左右側方運動, 回轉運動, 前後方運動 等이며 이러한 運動等을 複雜하게 反復하던 即 咀嚼運動이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運動을 하는 兩關節은 各患者에 따라 顎路(關節運動의 角度)가 다를뿐더러 同一患者일지라도 左右의 顎路는 다른 것이 十中八九이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이 複雜한 運動을 하는 下顎關節의 顎路를 各患者에서 測定하여야할 것이며, 또 其顎路에 準하여 總義齒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咬合器. 總義齒製作에 있어서의 諸過程을 直接 患者 口腔內에서는 不可能한 것이며, 口腔外에서 어디까지나 下顎關節運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精密機具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所謂 咬合器라 稱하며 이 種類는 多大數에 이르고 있으나 其機能에 따라 關節運動을 測定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하우스氏” “스텐스베리氏” “키네스쿰” “하노氏” “덴타티스” 咬合器等을 列舉할 수 있으며, 이와 反對로 다만 開閉運動(蝶蟠運動)만 할 수 있는 平行咬合器도 있고 이것보다 조금 進歩된 咬合器로서는 “기이지氏 單純咬合器”라 稱하며 사람의 正常顎路는 統計結果 三十三度라고 하며 이 顎路를 固定하여 만든 咬合器이다.

臨床的 考察

前述한 바와같이 複雜하고 또 千差萬異의 各個人의 下顎關節運動 狀態는 아직도 完全히 把握할 수 없으며 近來에는 X線(세파로마)로 이 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나 어디까지나 部分的이며 完全하다고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複雜한 關係를 簡單한 咬合器를 使用하여서는 倒底히 測定할 수 없으므로, 測定할 수 있는 咬合器를 使用하여 可及的 細密히 測定하여 其顎路에 準하여 總義齒를 製作하여 諸機能을 恢復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前述한 咬合器中에서도 “하노氏” 咬合器는 臨床에 있어서 其價値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使用法이 簡單하며 또 比較的 正確성이 있다고 본다. 이 咬合器는 先進國에서는 普偏化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問題로 一般化되지 못한 것은 甚히 遺憾之事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이 下顎關節問題가 언제 解決될는지?

이것은 우리 齒科補綴學界의 커다란 難問題이며 解剖學基礎를 爲始하여 矯正學, X線學 等 各學界에서 總力을 기우려 解決하여야만 하는 커다란 課題이라고 생각한다.